

이승준 02) 2009-7088  
leesj@leading.co.kr

3일 뉴욕증시는 부진한 경기지표 확인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원책에 힘입어 주간 모기지 신청자 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상승.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172.60p(2.05%) 오른 8,591.69에 장을 마감. 씨티그룹이 다우지수 상승세를 견인하며 8.3% 상승.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이 각각 7.1%, 6% 오르며 금융주들이 상승세를 기록.

S&P500 지수는 21.93p(2.58%) 상승한 870.74를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42.58p(2.94%) 오른 1,492.38에 장을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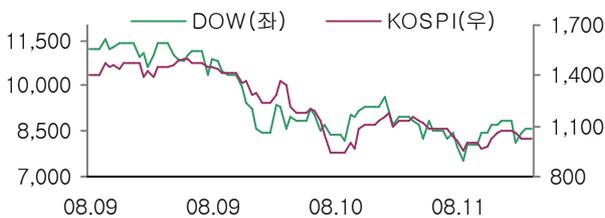
이날 증시는 경기후퇴 우려가 부각되면 하락 출발.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경기침체의 타격을 받고 있다고 평가한 베이지북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

미국 ADP 고용보고서에 의하면 11월 민간부문 고용이 25만명 감소하며 7년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 또한 ISM 서비스업지수가 예상치인 42를 하회하는 37.3을 기록하며 경기후퇴를 재차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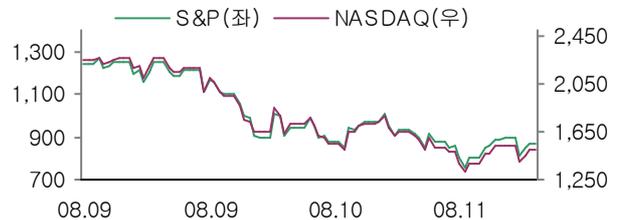
하지만 경기후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원책에 힘입어 주간 모기지 신청자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금융주들이 오르며 증시는 상승세로 전환 마감

미국 시장 주요 지표(pt, %)

지수	종가	1일	5일	10일	1개월	3개월	12개월
DOW(좌)	8,591.69	2.05	-1.55	7.43	-7.81	-25.40	-35.15
S&P(좌)	870.74	2.58	-1.91	7.95	-9.89	-31.84	-40.47
NASDAQ(우)	1,492.38	2.94	-2.59	7.64	-13.55	-36.47	-43.04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